

방재인프라 구축 ... 도시재생 투자 확대돼야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해·재난 등 사전 방재시설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경남도 회장(한림건설 회장)은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복지, 국방, 교육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방소재 건설업체들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양산, 김해, 창원 지역에 내린 폭우 피해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풍수해로 인한 대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평소에 확충하고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지구의 도로교통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빗물을 이용한 지하 방수로 건설이나 다목적 유훈지 등 적극적인 방재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은 지방경제의 한 축으로,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창출형 산업이고 내수를 살리는 데 가장 효과가 큰 산업이다.

김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공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 종합심사(평가)낙찰제 평가기준 중 기술자 보유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여 진입장벽 요인들을 없애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침수피해 막을 시설 사전 확충 취약지구 도로정비 물량 확대 중소기업 입찰 진입장벽 낮춰야

아울러 “종합과 전문 간 업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시공 범위를 안전 점검을 직접 수행한 후 이에 수반되는 개량·보수·보강공사로 한정하고, 두 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는 종합건설업이 시공할 수 있도록 업역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진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도 경남 소재 도시들이 다수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경남도 내에도 뉴딜정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창원시의 창동, 오동동 지역은 시가 재생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명확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힘들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신도시는 개발 붐이 불고 있지만 그로 인해 구도심이 공동화 위기에 봉착해 있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또한 조선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통영·거제 지역이 슬럼화된다면 경남 남해안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이 지역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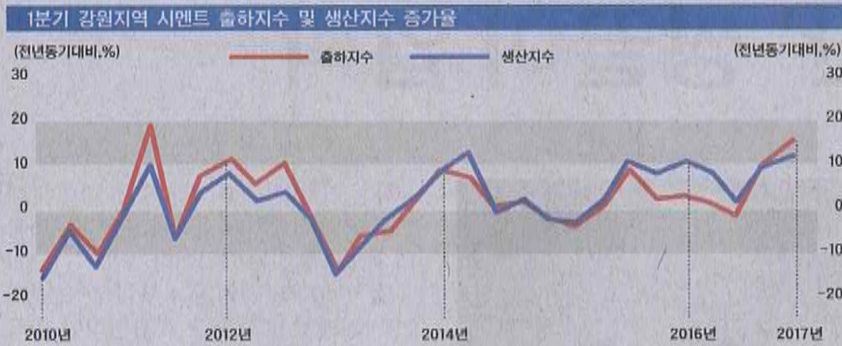
특히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경남을 동남권 경제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사천·진주 우주항공산업 육성의 공약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청신호라고 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은 △사천·진주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경남 남해안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양산시 일원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 스스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운 것은 국가경제 침체, 정부의 잦은 건설정책 변경 등 외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건설인 스스로 차입 경영과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방안만 경영도 문제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ET(환경공학기술)·CT(문화콘텐츠기술) 등 산업 기술 간 융·복합과 스마트 건설 등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김 회장은 전망했다.

그는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공능력 배양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철저한 수익 분석을 통해 경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강원 분양시장 호조 시멘트 경기도 '활황'

주택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강원지역의 시멘트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6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원지역의 시멘트 출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시멘트 생산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어난 시멘트 생산지수는 올해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

**1분기 출하, 작년보다 15.3% 증가
생산도 12.2% 늘어... 증가폭 확대**

**재고물량 감소세 당분간 지속
유연탄값 하락... 수익성도 개선**

당초 올해 강원지역 시멘트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분양시장이 둔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계속 공급되고 기존 분양 물량의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강원지역의 시멘트 수요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고 물량은 감소세다. 올해 1분기 강원지역 시멘트 재고지수는 90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 한때 시멘트 재고지수는 110을 훌쩍 뛰어 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재고지수인 94.3 밑으로 내려갔다.

기존의 아파트 분양물량을 비롯해 동상적으로 여름철 늘어나는 건설수요 등을 고려하면 시멘트 재고물량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에 유예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새 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등이 시멘트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로 꼽힌다.

시멘트 업계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시멘트 생산 기업수가 감소하면서 건설사에 대한 시멘트 업계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한일시멘트가 현대시멘트를 인수해 업계 1위로 올라선 것도 시멘트 업계 간의 가격 경쟁을 줄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생산원가 부담을 줄였다. 올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호주산 유연탄 가격의 경우 지난 5월 기준으로 연초보다 가격이 13% 가량 하락했다. 유연탄 가격은 시멘트 생산원가의 2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시멘트 업계의 수익성 개선 요소가 된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경기 호조로 도내 시멘트 업계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물량 부족과 같은 문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seok@